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권 순 혁

국문초록

FTA 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 농촌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농업법인은 규모의 경제 실현, 생산품의 고품질화,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의 실현 등에 있어 소규모 농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업법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자지분에 따라 비농업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농지소유까지 가능하여 비농업부문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990년 육성을 시작한 이래로 2000년 1,356개소에서 2016년 6,645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동부팜화옹의 화옹간척지 유리온실사업 매각과 LG CNS의 새만금 바이오파크 건립 무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농업부문의 농업진입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 등 비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시도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즉, 비농업부문의 자본이 농업에 투자되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찬성측 주장과 영세소농과의 경합과 토지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반대측 주장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갈등이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사례와 이념적 주장에서 비롯되어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비농업부문 자본의 농업진출이라는 갈등문제의 해결과 농업회사법인 육성과 관련된 농정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회사법인 10,522개소를 대상으로 비농업부문 출자비

율이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 등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 성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총자산순이익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담보력과 신용도를 높여 원활한 자금차입을 통한 회사운영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총자산순이익률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 증가라는 비재무적 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 비농업부문이 지니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농업회사법인 육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상근고용종사자와 무형자산을 증가시키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증가가 제한적으로나마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농업의 발전과 연계된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은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분석자료의 시점이 현재와 다소 차이가 나고,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측정이 제한되며, 농업법인조사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 경영성과
학 번 : 2011-22177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3
제 3 절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비농업부문 출자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	8
제 2 절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유형과 출자이유	13
제 3 절 비농업부문의 농업진입에 관한 선행연구	21
제 4 절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4
제 5 절 선행연구의 정리 및 한계	26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8
제 1 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28
제 2 절 변수의 선정	29
제 3 절 연구가설	31
제 4 장 비농업부문 출자에 대한 효과성 분석	32
제 1 절 분석대상자료 기초현황	32
제 2 절 주요변수 기술통계	47
제 3 절 상관분석	52
제 4 절 비농업부문 출자 영향력 분석	54
제 5 장 결론	6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2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63
참고문헌	67

표 목 차

[표 1-1]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비교	4
[표 1-2]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과정	5
[표 1-3] 분석대상의 선정(2011~2014년)	6
[표 2-1]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유형별 개념정의	14
[표 2-2] 지방자치단체 농업회사법인 출자사례	16
[표 2-3]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찬반이유	23
[표 3-1] 변수의 구성	31
[표 4-1]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추이	32
[표 4-2]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추이	33
[표 4-3]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 추이	34
[표 4-4] 농업회사법인 자산 추이	34
[표 4-5] 농업회사법인 부채 및 자본 추이	35
[표 4-6] 농업회사법인 매출액 및 손익 추이	35
[표 4-7]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추이	36
[표 4-8] 사업유형별 농업회사법인 수	37
[표 4-9] 사업유형별 주요 재무지표	38
[표 4-10] 사업유형별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39
[표 4-11] 매출액규모별 농업회사법인 수	40
[표 4-12] 매출액 규모별 주요지표	41
[표 4-13]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42
[표 4-14]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수	43
[표 4-15]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주요지표	44

[표 4-16]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45
[표 4-17] 운영기간별 농업회사법인 수	46
[표 4-18] 운영기간별 농업회사법인 주요지표	46
[표 4-19] 운영기간별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47
[표 4-20] 분석대상 주요변수 기술통계	48
[표 4-21]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표	53
[표 4-22] 매출액영업이익률 회귀분석표	54
[표 4-23] 총자산순이익률 회귀분석표	56
[표 4-24] 자기자본순이익률 회귀분석표	57
[표 4-25] 상근고용종사자 회귀분석표	58
[표 4-26] 무형자산 회귀분석표	59

그 립 목 차

[그림 2-1] 농식품부 모태펀드 운용체계도	15
[그림 3-1] 연구의 분석모형	28
[그림 4-1] 연구변수(비농업부문 출자비율) 기술통계	49
[그림 4-2] 종속변수(재무성과 관련) 기술통계	50
[그림 4-3] 종속변수(비재무성과 관련) 기술통계	51
[그림 4-4] 통제변수(농업회사법인 일반특성) 기술통계	51
[그림 4-5] 통제변수(농업회사법인 재무적특성) 기술통계	5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FTA 등 농업분야 시장개방 확대, 농업·농촌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농가소득 정체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농가 경영주가 2000년 138만호에서 2015년 109만호로 약 21% 감소했고, 70세이상 농가경영주 비중은 37.8%,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¹⁾된 것을 보면 농업·농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생산성과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영세 소농 위주의 농업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1990년대부터 영세소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전업농어가·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 등을 육성·지원하고, 영세농어의 전업(轉業)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이 대책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여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농업법인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수석 외, 2006)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이러한 농업법인의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5,208개였던 농업법인의 수는 2016년

1) 통계청(2016년) 2015 농업총조사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19,413개로 27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이 2000년 3,852개에서 2016년 12,768개로 231% 증가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2000년 1,356개에서 2016년 6,645개 390% 증가³⁾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법인 육성은 비농업자본의 농업투자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찬성측 주장과 영세소농과의 경합, 토지 투기 등에 우려가 있다는 반대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김태곤 외, 2013), 농업회사법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농업회사법인 육성 관련 갈등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2013년에는 (주)동부팜화옹이 화옹간척지에서 추진하던 유리온실사업이 전농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으로 확대되어 동부그룹의 농자재 불매운동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매각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LG CNS가 새만금 지구에 새만금 바이오파크 건립계획을 기존 시설원예농가 등 농민단체의 반대로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는 대기업 등 비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를 제한하려는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19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어 법안이 폐기되는 사례가 있었다.(김병률 외, 2017)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업 등 비농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입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어려움을 박규동(2012)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전반적·거시적 수준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농업법인 운영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비농업자본의 농업부문 투자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와 지역사회공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없이는 비농업자본의 농업분야 진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거나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단순히 찬반 입장을 고수하는 형태의 사회적 갈등만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3) 통계청(2017년) 2016년 농업법인조사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농업자본의 농업투자가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비농업자본의 투자정도가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비농업자본의 농업투자에 대한 농정방향 설정과 동시에 사회갈등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권의 형태인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농업인이 조합원이 되며,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을 지니지 못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도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운영에 있어서 비농업인 출자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농업자본의 농업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일반기업이나 농식품기업이 수직적 통합 형태로 농업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농업생산 부문에 계열화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도 비농업부문의 농업법인 출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률 외, 2017)

이처럼 비농업부문의 농업투자는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개념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구성으로 설립이 가능하다.(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설립) 비농업인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한도는 1990년대에는 50%, 2004년 75%, 2009년 90%로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김태곤 외, 2013)

의결권은 합명·합자·유한회사는 1구좌당 1표이며, 주식회사는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는 농업인이 업무집행권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4) 농업회사법인의 주요사업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있으며, 부대사업으로는 영농자재 생산공급, 농산물 구매비촉, 농기계 임대수리 등이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이와 같은 특징들과 제도적 변천내용을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하면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주체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 생산자단체)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 결원 시, 1년이내에 총원(미총원시 해산사유)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한도
사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촉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특례	○ (국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 법인세의 경우 농업소득은 전액면제,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은 조합원1인당 연 1,200만원(영농조합법인), 4년간 50%(농업회사법인) 감면 ○ (지방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법인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업무안내서(2017)

4) 「농지법」 제2조 제3호

표 1-2.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과정

구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년 개정	2009년 개정	
근거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영농조합법인	취지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경영 합리화로 생산성 제고 농산물공동출하, 가공·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 제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제고	
	농지	농지소유 가능 소유상한 없음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합산면적 가능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사업	농수산업과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작업대행				
	주체	당해시·군 거주 3년 이상 영농 1ha 미만 농지 소유자	유지 유지 소유상한 폐지	거주지 요건 폐지 영농기간 요건 폐지 농업인·생산자단체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출자	농지와 현물에 한정 1인당 총출자액의 1/3 이하	현금출자 가능 유지	준조합원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타법	민법의 조합규정 무한책임			해산명령에 상법 176조 준용	
농업회사법인	취지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영농편의와 농업경영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설립		설립등기 후 시장·군수에 통지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 통지		
	농지소유	불가능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 이상, 농업인이 대표사원,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 가능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사업	농업경영 농작업대행(농기당 위탁상한 3ha)	위탁상한 3ha 폐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부대사업		
	주체	농민	농민·생산자단체·농지개량조합	비농업인 출자 가능	농지개량조합 삭제	
	출자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2(주식회사는 1/3) 이하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4(2004년 개정)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90/100
타법	상법의 회사규정 유한책임 무한책임					

출처 : 김정호 외(20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부문이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활발히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농업회사법인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분석자료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업법인조사」 자료중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을 통해 제공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법인조사 자료에 포함된 농업회사법인 원자료를 활용한다. 농업법인조사는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 운영형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향후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서, 대법원의 법인등기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매년 진행한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전화조사, 팩스·우편·이메일 조사를 실시하며, 2000년에서 2014년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발표하고 있으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는 2014년 원자료까지만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대상 농업법인 개소 수는 [표 1-3]과 같으며, 본 연구는 경영성과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과 주요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표 1-3. 분석대상의 선정(2011~2014년)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재무제표 작성 농업회사법인	분석대상 (결측값 제외)
계	13,390	12,377	10,522
2011년	2,052	1,926	1,659
2012년	2,875	2,716	2,283
2013년	3,682	3,472	2,923
2014년	4,781	4,263	3,657

자료 : 통계청 MDIS 농업법인조사 원자료 재구성

제 3 절 논문의 구성

논문은 2장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도입배경과 비농업자본의 농업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농업자본의 농업진입에 관한 선행연구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본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주요 변수 및 분석모형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술통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한다. 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농정방향 설정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며, 연구의 한계를 기술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비농업부문 출자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외국인 투자 지분율 차이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지분율 차이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차이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1998년 5월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1992년 외국인투자자 주식보유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 3%에 불과했으나, 2017년말 기준 33.6%까지 상승하였다.⁵⁾ 이와 같은 현상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가 제한되었다가 50% → 75% → 90%까지 출자한도가 증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기업의 수익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가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박경서 외, 2006; Khanna 외, 1999; Chhibber 외, 1999)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어서 기업감시에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정보불균형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경애 외, 2009)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을 제공하여 법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선진 경영기법의 전수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경영투명성의 개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경서 외, 2006; 박헌준 외, 2004)

5) e-나라지표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외국인의 출자비율 확대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비율 확대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겠으나, 외국인과 비농업인에 대한 출자제한이 있다가 폐지 또는 완화되었다는 점, 외국인과 비농업인의 자금력이 내국인이나 농업인에 비해 풍부하다는 점, 외국인과 비농업인의 경영전문성이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나 농업인에 비해 우수하였던 점 등이 유사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의 출자비율 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아래에서는 조직, 사업추진, 경영관리, 기타 4개 부문에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부문의 출자보다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농업부문 출자와 재무적 경영성과 향상의 논거

① 조직운영 효율화

조직운영 효율화는 지역의 농업인들로만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된 경우 주도적인 몇몇 농업인에 의해서만 조직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별 농장주들의 출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농업회사법인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별 농장의 이익에만 집중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게 되므로, 출자자간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경영성과가 저하되게 된다. 그러나, 비농업부문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고, 총회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조직운영이 민주적으로 변모하고, 효율화되어 경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② 투자촉진

기존 외국인 투자지분율과 경영성과 연구에서 외국인 투자가 배당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성향이 있다고 연구된 적 있다.(박경서 외, 2006)

비농업부문의 투자 역시 자금력이 있는 비농업인과 회사, 정부 등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배당요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농업부문의 투자가 많은 것은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홍보효과도 증가되어 더 많은 비농업부문의 투자를 유발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자금확보를 통한 투자촉진이 발생하게 된다.

③ 감시활동 강화

농업회사법인의 수입지출 기장 및 결산 등 회계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합리적인 예산집행계획 없이 불필요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자산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생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내부감시가 확대되면서 향상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비농업부문의 출자 확대는 회계처리, 예산집행, 품질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를 높인다.

④ 철저한 사업관리

사업관리는 입지조건 고려, 사업선정,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농업부문은 사업평가 및 개선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법인의 노동력과 영농기술, 시설장비 활용, 사업추진 등에 있어서는 농업인의 농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인이지만,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과정 평가, 사업결과 평가 등 각 사업단계에 맞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단·도출한다면 경영성과는 더욱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⑤ 소비자 수요반영 관로개척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신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판로이다. 판로는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판로와 대형할인매장, 유통업체매장 등 오프라인을 활용한 판로가 있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수요와 직결되는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투자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비농업부문 출자자가 소비자의 특성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상품판매에 있어 비농업부문 출자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 농업회사법인의 판촉방법 중 하나가 인맥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 농업인들의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비농업부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추가로 판매하게 된다면 판로개척 효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비농업부문 출자와 비재무적 경영성과 향상의 논거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농업회사법인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근고용종사자를 증가시키는 것과 농업회사법인의 장기적인 경제 효익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무형자산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상근고용종사자 증가

비농업인의 출자가 확대되었을 때 상근고용종사자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비농업부문 출자자의 장기적 투자관점이 상근고용종사자를 증가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농업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그 투자가 1년여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는 농업회사법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게 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일반기업은 원료공급 또는 상품생산을 위한 수직계열화의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들의 안정

적 원료공급 등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출자를 하게 된다.

한편, 일반 비농업인인 경우 농업인에 비해 자금 유동성 부문에서 유리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농업인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농업인은 농지와 건축물 등 고정자산에 한정되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만, 비농업인은 자산규모가 크고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비농업인의 출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비농업부문이 농업부문에 비해 고용에 대한 인식이 더 탄력적이고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상근고용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까지 가족농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이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은 농번기에 단기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농업인 비율이 높은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량 증가 또는 가외업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보다는 농업인인 출자자가 직접 이를 해결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기업, 비농업인 등의 출자비율이 높은 농업회사법인에서는 사업량과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여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사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이 얼마나 많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기대효과와 이행 여부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고 있어, 정부지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농업회사법인의 신규고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상근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비농업부문의 출자를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차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자체적으로 인적/물적 투자를 증가시켜, 이에 따라 고용인원 역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 증가

무형자산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농업회사법인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특허·실용신안·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등을 말한다.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가 무형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가 상근고용종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유사하다.

농업회사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러한 신기술 접목에 있어서는 농업부문보다 비농업부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ICT기술의 발달, 스마트농업의 보급,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비농업부문에서 무궁무진하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 한 분야 있어서만 전문성을 지녀서는 기술적으로 뒤쳐지는 세상이 된 것이다. 농업과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에 있어서 농업인 출자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이 접할 수 있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양과 질이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많은 농업회사법인이 접할 수 있는 최신 기술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높아질수록 농업회사법인의 연구개발비, 산업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무형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 2 절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유형과 출자이유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유형은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기타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이루어진 농업부문과 비농업인과 기타법인으로 이루어진 비농업부문으로 구분⁶⁾이 가능하며, 각 출자자의 개념을 정의하면 [표 2-1]과 같다.

6) 김병률 외(2017)도 비농업인과 기타법인의 출자를 비농업 부문의 출자로 분류

표 2-1.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유형별 개념정의

대분류	소분류	정의
농업부문	농업인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등의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등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농축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비농업부문	비농업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자를 하는 자연인(개인사업체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
	기타법인	농업생산자단체 이외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유한책임), 학교법인 등

* 출처 : 농업법인 현황조사표(2016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비농업부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비농업인인 개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사법인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3가지 구분을 토대로 각 출자자의 출자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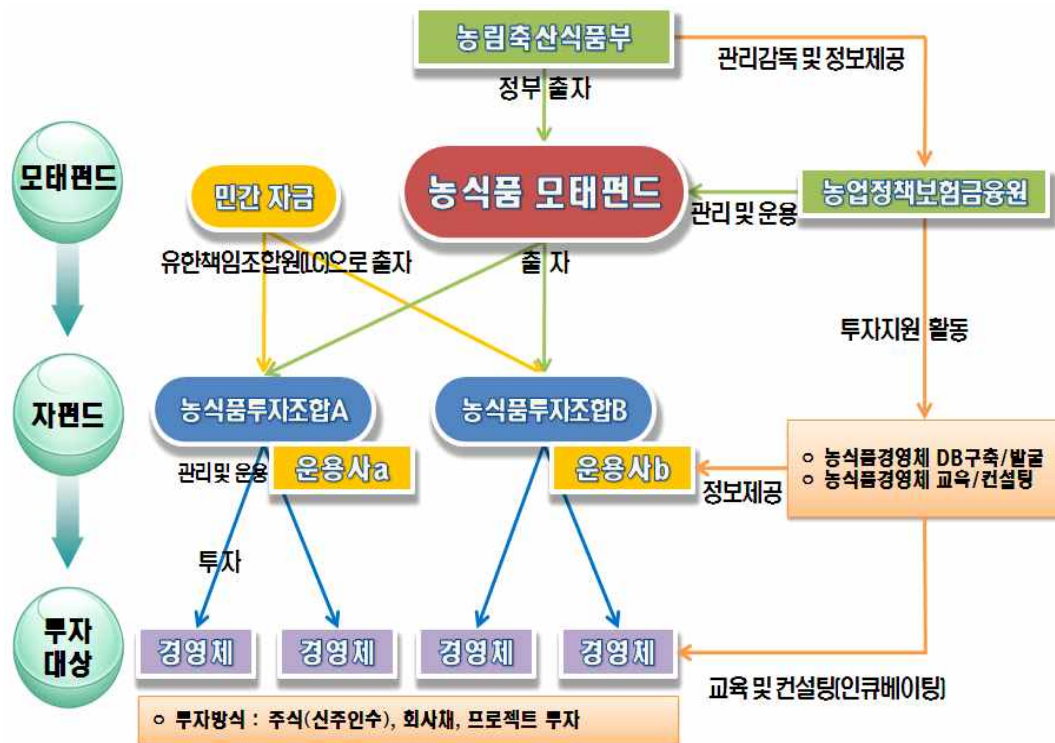
1.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① 농업경영체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농식품펀드 활용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는 농식품펀드를 활용한 투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펀드의 목적은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하는 것인데, '17년말 기준 8,205억원이 결성되어 214개 경영체에 4,740억원이 투자되어 있다.⁷⁾ 이는 농업회사법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거

나, 자금을 대여 받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 펀드 운용사가 사업성을 검토하여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주주 또는 파트너 관계가 되어 경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농식품펀드의 투자절차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농식품부 모태펀드 운용체계도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18.2.19, 농식품펀드 505억원 신규조성)

농식품펀드를 활용한 농업회사법인 투자사례로 정육 및 가공육제품 생산, 팬션 및 식당운영 등을 추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금돈에 대한 투자 사례를 들 수 있다. (주)금돈은 농식품펀드로부터 '15년 25억원을 투자받아 종돈구입, 원료구매, 축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자금 등으로 활용하여, '15년 54억원의 매출액 수준에서 '16년 92억원 수준으로 매출액을 신장시켰다. 또한 '17년에는 추가로 농식품펀드로부터 15억원을 추가로 투

7) 농식품부 보도자료('18.2.19, 농식품펀드 505억원 신규조성)

자받아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가 기대되는 실정이다.

② 유통체계 개선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출자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는 개별 농업경영체가 직면하는 유통분야의 교섭력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생산자 등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출자하는 형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 농업을 육성하거나, 로컬푸드 등 관련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 사례로는 세종시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출자금 10억원의 세종로컬푸드(주)에 4억 8천만원을 출자하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중이다.

표 2-2. 지방자치단체 농업회사법인 출자사례

출자자	피출자법인명	설립목적
세종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 정예농가를 육성하고 관계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품 등 직판매장 운영
논산시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	-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 전통장류산업 현대화를 통한 성장 기여 - 전통장류산업의 영세성 및 생산량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수지개선을 통한 지역산업 모델제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	- 채소류 등의 가격경쟁력약화 극복을 위하여 가공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추진 - 절임류의 기능성 부각과 저염화 추진
고창군	농업회사법인 고창황토배기 유통(주)	- 산지유통조직참여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 - 유통업체 능동적 대처

고흥군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	- 고흥 농수산물특산물의 통합 브랜드마케팅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광역유통주체
영광군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	- 농특산물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부가가치 창출 -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
신안군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	-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 천일염 등 10여종의 주산지로 취약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추진
울진군	(주)울진유통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령군	농업회사법인 의령군토요애 유통(주)	- 농업인과 의령군, 농협의 든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 판로 다변화 및 농산물 수출 주도
합천군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 농특산물 등 수집, 분산, 배송 및 판매사업 - 국내외 시장개척 및 농산물 등 수출입사업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사업

* 출처 :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기관별 경영공시(2016년)

나. 회사법인(기업)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일반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는 안정적 원료공급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증대를 위한 수직 계열화, 기업의 자본·기술·판매망을 활용한 사회적책임(CSR) 실현 등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①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수직계열화

(주)선진은 축산식품전문기업으로 사료, 양돈, 식육유통, 육가공사업 등

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을 위해 제일종축 농업회사법인(지분율 90%), (주)유전자원 농업회사법인(지분율 87%),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지분율 90%) 등에 출자하여 돼지고기 판매를 위한 수직계열화를 이루었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국순당은 지역특산품을 원료로 지역 전통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농업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각지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주)국순당 여주명주는 전국 최대 고구마 주산지인 여주군을 기반으로 국순당 21억원, 여주군 10억원, 49개 고구마농가가 7억 4천 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고구마를 원료로 고구마 증류소주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은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대하여 기업의 매출액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없더라도 농업·농촌에 기업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다수의 영세농가가 존재하고, 유통·판매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농업 현실 속에서 자본력과 판매망을 지닌 기업의 참여는 지역사회도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소금수입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추진했는데, 특히 (주)CJ와 (주)대상을 상대로 식품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김태곤 외 2013). 이러한 유치노력과 기업의 공감을 통해 (주)대상 청정원은 천일염 생산자 82명과 공동으로 (주)농업회사법인 신안천일염을 설립하였고, (주)CJ는 천일염 생산자가 공동으로 어업회사법인 신의도천일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두 기업은 가공식품 등의 제조에 있어서 천일염 원료를 필요로 했던 측면도 있으나, 식품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비농업인(개인)

① 농업회사법인 운영주체의 출자권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농업회사법인의 경영관리능력 향상, 대외신용 향상, 종사자의 복리후생 향상 등 경영상의 이점과 세제 우대, 자금 차입 유리, 정부지원 등 제도상의 이점이 있어 작물재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시설투자, 토지매입 등 자금부족으로 농업회사법인 운영주체가 친인척을 비롯한 지인에게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출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이 대중화되어 다수의 일반인에 의한 소액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일례로 농업회사법인 (주)만나씨이에이는 농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반인 또는 농업인들을 만나씨이에이의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첨단 농장 설립을 위한 투자자로 모집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반인 등으로부터 7억원의 투자를 받는 사례도 있다.

② 안전한 농산물 직접소비를 위한 출자

환경, 안전, 건강 등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얻기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 행동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순천로컬푸드는 시와 시민주주 1000여명이 자본금 9억원을 출자해 만들었으며,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매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다.⁸⁾

8) 순천로컬푸드직매장, 개장 21개월만에 매출 60억원, 2018.2.22. 뉴스1

③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출자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는 단순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연천군의 농업회사법인 (주)참계여울주가는 연천군의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마을 주민들의 특기를 살려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50여명의 지역주민이 출자하여 설립하였다.⁹⁾

④ 세제혜택 및 편법적 농지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감면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비농업인 등 조합원에게는 식량작물재배업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및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세제혜택이 있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의 유인을 갖게 된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집행권자(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실시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 2016년 농식품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09개 법인이 농업관련 사업범위를 벗어나 영업활동을 실시했으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42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출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 연천군 주류농업회사법인 참계여울주가 사업설명회(2017.4.13., 아주경제)

10) 6개시도 709개 농업법인, 골프장 등 불법운영(2016.9.22. 뉴시스)

제 3 절 비농업부문의 농업진입에 관한 선행연구

비농업부문의 농업진입에 관한 연구는 농업경영의 법인화에 대한 유리성에 대한 연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적 체계구축방안,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생산자 의향 및 특성분석, 기업의 농업진입 관련 쟁점분석 등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김정호 외(2010)는 농업경영 법인화는 전문화 또는 다각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개별농가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판매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수석 외(2006)는 경영책임에 대한 자각을 가짐으로써 경영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법정 의무 등을 준수하여 대외신용도가 향상되며, 고용보험 등의 적용에 의해 농업종사자의 복리후생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으며, 법인후계자의 원활한 확보나 신규취농자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과세경감 및 법인세 정률부과 등에 따른 세제우대, 융자한도액의 확대 등 자금차입 유리 등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이점으로 법인화가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김태곤(2003)은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기업의 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협력에 의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존 영세농가와 경합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진입과 투기 목적의 진입방지를 전제로 신기술·신소재 개발 투자확대 및 첨단기술 농업이전, 가칭 농업기술개발기금 등 연구개발비 지원, 농산물 품질관리 및 판매망 활용, 지역특구제 활용을 통한 고용창출, 도시농촌 연대 및 교류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곤 외(2013)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생산자 의향 및 특성분석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리포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업의 농

업참여에 대한 반응, 농가의 기업참여에 대한 기대, 농가와 기업의 연대 방식, 기업참여에 대한 반대 이유 등에서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프로비트(probit)모형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력이 높고, 경작면적이 넓으며, 그동안 기업과 협력사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시설재배의 경우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대하고, 노지경작의 경우 농업참여를 찬성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원(2016)은 제조업의 성공요인을 수출지향과 수입개방을 염두에 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고급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분석하며, 농업분야도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업화를 통해 해외에 수출이 가능한 농업법인을 만든다면 내수시장을 잠식하지 않으며,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병률 외(2017)는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농업진입 현황, 기업의 농업진입 관련 정책 및 제도분석, 기업의 농업진입 갈등사례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기업의 농업진입 관련 쟁점도출 및 정책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2014년 농업회사법인 현황을 분석하여 축산업의 대기업 진입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지분 확대 등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수와 출자총액이 증가하고 있음과 비농업인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농업인 출자금보다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높은 것을 파악하였다.

한편, 비농업부문의 농업진입에 대한 찬반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김태곤 외(2013)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여 농업진입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견을 같음하도록 하겠다. 김태곤 외(2013)는 일반기업의 농업참여에 찬성하는 이유가 ‘기업이 유리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차산업화 결합에 용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R&D 농산물 부가가치 확보가 용이하여 농가소득 확보에 유리하다’, ‘도시자본 유입으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다’ 등으로 조사하였고, 농업참

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 자본이 농업에 유입되면 규모의 경제를 빌미로 영세규모 생산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험상 이익의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간다’, ‘기업은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시장 및 수출시장에서 생산자와 경쟁하게 된다’, ‘직접생산을 명분으로 토지 소유 및 투기 우려가 있다’, 기업 위주로 농업정책이 실시되므로 일반농가는 정책사업 참여기회가 축소된다’ 등으로 조사하였다.

표 2-3.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찬반이유

기업의 농업참여 찬성이유	기업의 농업참여 반대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이 유리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② 6차산업화 결합에 용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③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이 가능 ④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⑤ 기업이 R&D 농산물 부가가치 확보가 용이하여 농가소득 확보에 유리하다 ⑥ 도시자본 유입으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 자본이 농업에 유입되면 규모의 경제를 빌미로 영세규모 생산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② 지금까지 경험상 이익의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간다 ③ 기업은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시장 및 수출시장에서 생산자와 경쟁 ④ 직접생산을 명분으로 토지 소유 및 투기 우려가 있다’, ⑤ 기업 위주로 농업정책이 실시되므로 일반농가는 정책사업 참여기회가 축소된다’

출처 : 김태곤 외(2013)

한편, 기업의 농업진입에 관한 해외연구는 국내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종 사례분석과 제도검토, 네덜란드·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업의 농업참여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

다.(Moran, 2014; Lyson, 2005; Welsh 외, 2001; De Laperouse, 2012; Gerritsen, 2014; Breukers, 2008)

이와 같이 비농업부문의 농업진입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기업의 농업진입에 관한 쟁점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농업법인과 가족농을 비교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성과가 더 우위에 있다는 연구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성호(1997)는 농업회사법인의 성립이 경영·경제적 효율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가족경영과 농업회사법인의 규모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가족경영에서는 적정조업을 위해서 기계를 도입하게 되고, 기계 도입은 또 다른 적정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며, 경영규모 확대는 다시 자본부족과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적·자본적 집적을 위해 법인경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사례분석 결과 법인경영이 인적·기술적 측면에서 가족경영에 비하여 현저히 우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기석(1997)은 양돈영농조합법인의 경영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양돈영농조합법인과 일반농가의 생산비, 비용함수, 수익성을 비교하여 양돈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 유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농조합법인의 두당 생산비가 적고, 사육두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도 영농조합법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순수익 측면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 일반농가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문호 외(2000)는 15개 농업법인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성장성과 관련한

지표의 전년도 실적 및 음식료 중소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검토하였으며, 수익성이 높은 경영과 수익성이 낮은 경영을 비교하여 경영성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년대비 수익성은 낮아졌으나, 안정성 및 성장성 부문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성공요인은 매출증대보다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비용지출 최소화를 꼽았고, 경영부진요인으로는 판로 불안정으로 투자자본에 비하여 매출실적이 저조한 경영, 고정자산의 취득을 주로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목하였다.

정양현 외(2007)는 농업법인에 대한 환경특성과 법인의 균형성과, 정부 지원과 서비스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108개 농업법인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장환경 요인과 재무성과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기술환경과 균형성과는 모든 요인들 사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수석 외(2006)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업법인 설립당시 대체로 조직 형태에 관해 비교 검토하거나 상담을 거친 다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설립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운영상에서 두 조직의 차이가 없으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규동(2012)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가지고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는데,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융자 지원유형을 연구변수로 설정하여 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금지원의 효과로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안정성, 활동성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대상 법인들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융자금은 장기적 안정성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만, 수익성과 활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문호 외(2014)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법인조사 원자료 가운데 2011년 국세청 법인세 자료에 등록된 농업법인 8,520개소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수익성 지표, 안정성 지표, 성장성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법인의 생애주기 7~10년 사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가 성장추세에서 하락세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성장성 지표의 경우 초기에는 성과가 양호하다가 5년차 이후에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지표인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사자 수, 매출액, 정부융자금, 영농조합법인 형태, 가공유통업사업유형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 5 절 선행연구의 정리 및 한계

위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이전 농업법인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분석이 이루어져, 현행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2010년대 초반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상향이 75%에서 90%까지 확대되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측정할 수 없다.

둘째, 기존의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 참여연구와 농업법인의 성과연구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비농업부문(비농업인, 기업 등)의 투자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법인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기업 등의 농업참여가 농업분야에 쟁점

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급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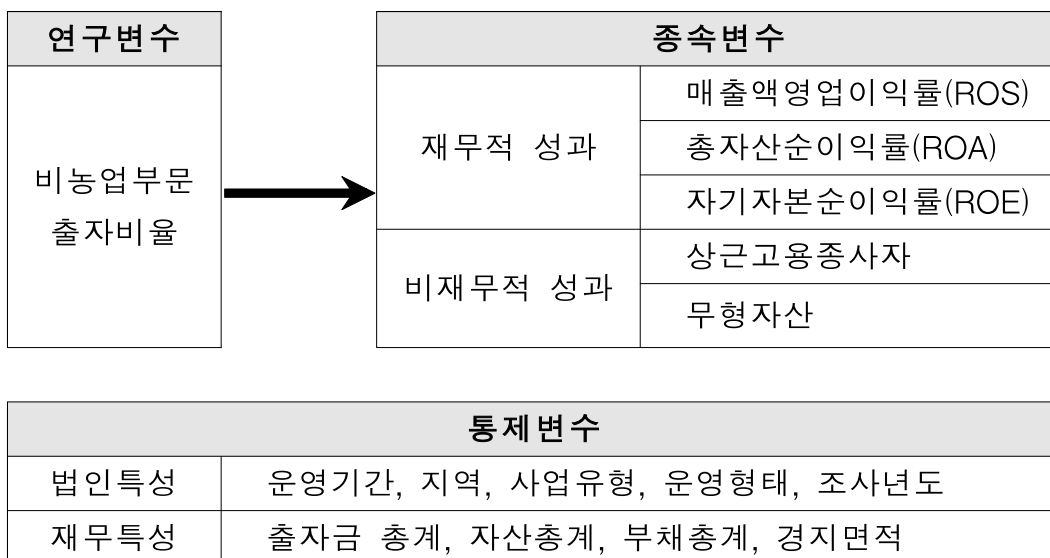
셋째, 농업회사법인의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 지역사회 및 농업분야 공헌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 농업회사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육성을 추진 중이며, 민간자본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개발 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업 등 비농업부문의 농업참여에 대한 공과가 더욱더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에서 검토하였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의 지역별 특성, 운영기간, 경지면적, 사업유형, 출자금 총계 등 사업체의 일반적인 특성과 재무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을 연구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를 통한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법인조사 원자료는 개별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패널ID를 제공하지 않아, 연도별 개체 수가 다른 불균형패널 자료로서 개별기업에 따른 고정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법인조사는 연도별 전수조사 결과이며, 사전측정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있어 선택편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 등의 내적타당성 침해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적합한 설계로 볼 수 있다.(박규동, 2012)

제 2 절 변수의 선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하였는데 재무적 성과지표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지표들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ong profit to net Sales),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수익성을 모두 포함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 경영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농업회사법인이 지역경제와 농업분야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을 지표로 활용한다. 고용규모는 농업회사법인의 상용근로자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상용근로자 수가 많으면 지역사회에 일자리 제공과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형자산은 농업회사법인이 재화를 만들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미래에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있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

권, 영업권, 저작권 등을 의미하며, 무형자산의 증가는 농업분야 투자증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두 지표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업분야 투자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로 농업회사법인의 비재무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변수는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유형은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기타법인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농업생산자단체는 농협·임협 등의 농업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 의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며, 기타법인은 농업생산자단체 이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이 4개의 유형 중 본 연구에 사용하는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은 전체 출자금 중 비농업인과 기타법인의 합계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농업생산자단체에 출자하는 비농업인의 출자금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금의 비중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비농업인과 기타법인의 출자금에 대해서만 비농업부문의 출자금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지역적 특성, 운영기간, 경지면적, 사업유형, 출자금 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업체의 특성은 선행연구에 통제변수를 설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었다.(노미현, 2014; 이상호 외, 2011, 임인섭 외, 2017) 선정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구성	비고
연구변수	비농업부문 출자비율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중 비농업인과 기타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종속변수	매출액 영업이익률(ROS)	영업이익/매출액	재무적 성과
	총자산순이익률(ROA)	당기순이익/자산총계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본금총계	
	고용규모	상근고용종사자 수	비재무적 성과
무형자산	무형자산 총계		

통제 변수	지역	시도별 구분	법인 특성
	운영기간	조사연도-설립연도	
	경지면적	논·밭·과수원 경작면적	
	사업유형	작물재배, 축산, 가공·유통, 위탁영농, 농업서비스 등	
	자산총계	자산 총액	재무 특성
	부채총계	부채 총액	
	출자금총계	출자금 총액	
	조사년도		

제 3 절 연구가설

위와 같은 분석모형 설정과 변수선정,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비농업 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 (가설-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은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은 농업회사법인의 총자산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은 농업회사법인의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은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은 농업회사법인의 무형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4장 비농업부문 출자에 대한 효과성 분석

제1절 분석대상자료 기초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 농업회사법인은 2011년 1,659개소, 2012년 2,283개소, 2013년 2,923개소, 2014년 3,657개소로 4년간 120.4%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비농업부문 출자자 수는 2011년 4,104명에서 2014년 11,995명으로 192%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농업부문 출자자 수가 26%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출자자에서 비농업부문 출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3.4% 수준에서 2014년 26.5%로 약 2배 증가하였다.

표 4-1.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추이(2011~2014년)

단위 : 명, 개소

연도	법인 수	출자자 계 (A+B)	농업부문 (A=C+D)	비농업부문 (B=E+F)	농업인 (C)	생산자 단체(D)	비농업인 (E)	기타법인 (F)
2011	1,659	30,529	26,425	4,104	26,109	316	4,104	-
	법인당	18.4	15.9	2.5	15.7	0.2	2.5	-
	비율	100.0	86.6	13.4	85.5	1.0	13.4	-
2012	2,283	37,477	28,799	8,678	28,631	168	8,400	278
	법인당	16.4	12.6	3.8	12.5	0.1	3.7	0.1
	비율	100.0	76.8	23.2	76.4	0.4	22.4	0.7
2013	2,923	42,059	31,215	10,844	31,006	209	10,565	279
	법인당	14.4	10.7	3.7	10.6	0.1	3.6	0.1
	비율	100.0	74.2	25.8	73.7	0.5	25.1	0.7
2014	3,657	45,306	33,311	11,995	33,050	261	11,704	291
	법인당	12.4	9.1	3.3	9.0	0.1	3.2	0.1
	비율	100.0	73.5	26.5	72.9	0.6	25.8	0.6

한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금 총액은 2011년 1조 272억원에서 2014년 1조 8,555억원으로 80.6% 증가하였다. 농업부문 출자금이 2011년 8,355억원에서 2014년 1조 1,682억원으로 39.8% 증가한 것에 비해, 비농업부문 출자금 총액은 2011년 2,664억원에서 2014년 6,873억원으로 158% 증가하여, 출자자 수와 동시에 출자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출자금 증가로 인해 전체 출자금에서 비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출자금 비중은 2011년 25.9%에서 2014년 37.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 자치체, 기업 등의 출자유형이 포함된 기타법인의 경우 출자자 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출자자의 0.6%를 차지하지만 출자금은 전체의 12.1%를 차지하여 기타법인당 출자금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추이(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연도	법인 수	출자금 계 (A+B)	농업부문 (A=C+D)	비농업부문 (B=E+F)	농업인 (C)	생산자 단체(D)	비농업인 (E)	기타법인 (F)
2011		1,027,187	760,815	266,372	669,892	90,923	266,372	-
	법인당	619.2	458.6	160.6	403.8	54.8	160.6	-
	비율	100.0	74.1	25.9	65.2	8.9	25.9	-
2012		1,347,612	835,540	512,072	749,840	85,700	383,011	129,061
	법인당	590.3	366.0	224.3	328.4	37.5	167.8	56.5
	비율	100.0	62.0	38.0	55.6	6.4	28.4	9.6
2013		1,557,229	958,120	599,109	867,445	90,675	437,344	161,765
	법인당	532.8	327.8	205.0	296.8	31.0	149.6	55.3
	비율	100.0	61.5	38.5	55.7	5.8	28.1	10.4
2014		1,855,547	1,168,204	687,343	1,067,208	100,996	463,722	223,621
	법인당	507.4	319.4	188.0	291.8	27.6	126.8	61.1
	비율	100.0	63.0	37.0	57.5	5.4	25.0	12.1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는 출자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대표자

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형태, 그리고 출자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으나, 출자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유형은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농업법인조사결과에서도 제외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제외하고, 출자자 공동운영과 대표자 단독운영 두 가지 형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2011년 출자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이 551개소로 전체 대비 33.2%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공동운영 개소 수가 1,200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농업회사법인의 증가로 인하여 그 비율은 32.8%로 큰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하는 신설법인의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3.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 추이(2011~2014년)

단위 : 개소 수

조사년도	계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개소 수	비율	개소 수	비율
2011	1,659	551	33.2	1,108	66.8
2012	2,283	780	34.2	1,503	65.8
2013	2,923	854	29.2	2,069	70.8
2014	3,657	1,200	32.8	2,457	67.2

농업회사법인 자산현황은 2011년 법인당 26억원 수준으로 유동자산이 43.7%, 고정자산이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법인당 자산규모 25억원 수준으로 유동자산 비율이 42.1%로 감소하였고, 고정자산 규모가 57.9%로 고정자산의 비중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농업회사법인 자산 추이(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조사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1	2,601	1,137	43.7	1,464	56.3
2012	2,627	1,095	41.7	1,532	58.3
2013	2,524	1,067	42.3	1,457	57.7
2014	2,496	1,051	42.1	1,445	57.9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부채는 2011년 16억 1천7백만원에서 2014년 16억 7천9백만원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유동부채 비율은 2011년 65.5%에서 2014년 61.6%로 감소하였으나, 고정부채가 2011년 5억 6천만원에서 2014년 6억 4천만원으로 증가하여, 장기간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5. 농업회사법인 부채 및 자본 추이 (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조사년도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1	1,617	1,060	65.5	557	34.5	619
2012	1,704	1,090	64.0	614	36.0	590
2013	1,737	1,105	63.6	632	36.4	533
2014	1,679	1,035	61.6	644	38.4	507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당 매출액은 평균 32억원 수준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매출액 총 규모는 2011년 5조 3천억원에서 2014년 11조 7천억원으로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법인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약 1억원 수준에서 2013년 적자로 감소했다가 2014년 다시 1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연도별 매출원가의 증감과 영업외비용의 증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표 4-6. 농업회사법인 매출액 및 손익 추이 (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조사년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합계	법인당	합계	법인당	합계	법인당	합계	법인당
2011	5,316,098	3,204	842,828	508	159,134	96	165,470	100
2012	7,300,517	3,198	925,176	405	26,556	12	1,475	1
2013	9,396,543	3,215	1,139,909	390	-20,262	-7	-78,395	-27
2014	11,714,775	3,203	1,731,541	473	372,822	102	277,380	76

농업회사법인 상근고용종사자 수는 2011년 1만 1천명 수준에서 2014년 2만 4천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무형자산 규모도 2011년 277억원 수준에서 2014년 604억원 수준으로 118% 증가하였으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2011년 3,278ha에서 7,083ha 116% 증가하였다. 하지만 법인당 평균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은 연도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평균 농지소유면적은 2011년 0.8ha규모에서 2014년 0.6ha규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7.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추이(2011~2014년)

단위 : 명, 백만원, ha

조사년도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농지소유면적	
	합계	법인당	합계	법인당	합계	법인당	합계	법인당
2011	10,901	6.6	27,739	16.7	3,278	2.0	1,267	0.8
2012	15,273	6.7	41,176	18.0	6,034	2.6	1,586	0.7
2013	19,113	6.5	53,662	18.4	6,640	2.3	1,819	0.6
2014	23,496	6.4	60,363	16.5	7,083	1.9	2,168	0.6

연도별 사업유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수를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 분야가 약 30% 초반 수준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공업 분야가 20% 중반, 작물재배분야가 약 15%, 축산업 분야가 10% 내외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대비 2014년 사업유형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축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농축산물 가공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축산업 허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데에 반해 정부차원의 농촌 6차산업화 추진으로 농축산물 가공업 분야의 신설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8. 사업유형별 농업회사법인 수(2011~2014년)

단위 : 개소

조사년도	계	작물재배	축산업	농축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유통업 (도소매)	위탁 영농	농업 서비스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관광 및 음식업	기타
2011	1659 (100)	261 (15.7)	186 (11.2)	390 (23.5)	535 (32.2)	58 (3.5)	229 (13.8)	- -	- -	- -
2012	2283 (100)	353 (15.5)	220 (9.6)	542 (23.7)	749 (32.8)	37 (1.6)	39 (1.7)	40 (1.8)	51 (2.2)	252 (11.0)
2013	2923 (100)	462 (15.8)	277 (9.5)	750 (25.7)	920 (31.5)	54 (1.8)	25 (0.9)	33 (1.1)	69 (2.4)	333 (11.4)
2014	3657 (100)	565 (15.4)	308 (8.4)	969 (26.5)	1134 (31.0)	51 (1.4)	12 (0.3)	65 (1.8)	100 (2.7)	453 (12.4)

사업유형별로 농업회사법인 주요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자금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유형은 출자금 17억원 규모의 축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많이 출자한 사업유형은 약 8억원의 관광 및 음식업, 세 번째는 7억원 규모의 작물재배업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은 출자금 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에 있어서 타 사업유형보다 모두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유형은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사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유형은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사업으로 그 비율이 48%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농업서비스 분야가 35.7%, 세 번째로는 농축산물 유통업 분야가 34.6%로 나타났다.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사업은 평균 출자금이 54백만원으로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출자금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액을 출자하는 비농업인의 모집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유형은 위탁영농 분야로서 평균 출자비율이 16.8%이며, 두 번째로 낮은 사업유형은 작물재배업

으로 18.9%에 머무르고 있다. 위탁영농과 작물재배업에 있어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낮은 이유는 농업생산비와 농업소득이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투자 확대 및 혁신을 통한 수익증가가 크게 기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례로 논벼 생산농가의 10a당 총수입은 2010년 82만 2천원에서 2016년 85만 6천원으로 4.1% 증가하였는데, 10a당 생산비는 2010년 61만 4천원에서 2016년 67만 4천원으로 9.8% 증가하여, 전체 순수익은 2010년 20만 8천원에서 2016년 18만 2천원으로 12.5% 감소하는 등 큰 수익증가가 기대되지 않고 있다.¹¹⁾

표 4-9. 사업유형별 주요 재무지표(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

사업유형	법인 수	출자금	비농업 부문 출자비율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총계	10,522	550	30.9	2,549	1,691	858	3,205	51	35
작물재배	1,641	714	18.9	2,071	906	1,165	864	39	43
축산업	991	1,697	28.4	8,452	5,834	2,619	6,859	148	42
농축산물 가공업	2,651	432	32.2	2,329	1,701	628	3,197	47	18
농축산물 유통업 (도소매)	3,338	319	34.6	1,740	1,225	515	4,201	35	37
위탁영농	200	187	16.8	847	566	281	1,107	-16	-20
농업 서비스	305	424	35.7	1,484	921	564	1,396	19	17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138	54	48.0	1,010	886	124	1,963	62	25
관광 및 음식업	220	787	29.9	1,840	997	843	722	10	25
기타	1,038	363	36.6	1,826	1,145	681	1,868	69	71

11)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도별 논벼 소득분석

사업유형에 따른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의 평균값은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축산업의 경우 상근고용종사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공업으로 9.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업과 농축산물 가공업의 경우 사업장과 매출액 규모가 크고, 사업수행이 연중 상시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업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작물재배업에 비하여 기계화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상근고용종사자가 많은 것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탁영농 분야와 농지분양 및 위탁 판매 분야는 상근 고용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분야의 사업장 규모가 작고 소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0. 사업유형별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2011~2014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ha

사업유형	법인 수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농지소유면적
총계	10,522	6.5	17.4	2.19	0.65
작물재배	1,641	3.6	22.4	10.04	2.84
축산업	991	11.5	16.4	0.32	0.18
농축산물가공업	2,651	9.5	27.0	1.33	0.37
농축산물유통업 (도소매)	3,338	5.4	11.3	0.58	0.26
위탁영농	200	1.9	0.8	1.04	0.09
농업 서비스	305	4.0	8.3	0.17	0.11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138	2.3	0.1	0.11	0.10
관광 및 음식업	220	5.2	9.5	0.22	0.15
기타	1,038	4.8	15.4	0.45	0.06

무형자산은 농축산물 가공업과 작물재배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작물재배업에서는 농지에 대한 임차권이 농축산물가공업에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높아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탁영농,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사업유형에서는 무형자산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이 분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지면적은 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작물재배업에서 10.04ha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분야에서 0.11ha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작물재배 분야의 평균 농지소유면적은 2.84ha로 재배면적의 28.3%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분야의 농지소유 평균면적은 0.10ha로 평균 경지면적 0.11ha의 91%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별로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5억원 미만 기업의 비율이 2011년 45.2%, 2014년 44.1%로 나타나 농업회사법인의 약 45%가 매출액 규모가 5억원 이하의 작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매출액규모별 농업회사법인 수(2011~2014년)

단위 : 개소, %

조사년도	계	1억원 미만	1~5억원	5~10억원	10~20억원	2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
2011	1,659 (100)	395 (23.8)	355 (21.4)	176 (10.6)	218 (13.1)	240 (14.5)	146 (8.8)	129 (7.8)
2012	2,283 (100)	511 (22.4)	535 (23.4)	260 (11.4)	283 (12.4)	336 (14.7)	192 (8.4)	166 (7.3)
2013	2,923 (100)	653 (22.3)	651 (22.3)	336 (11.5)	344 (11.8)	462 (15.8)	269 (9.2)	208 (7.1)
2014	3,657 (100)	789 (21.6)	823 (22.5)	391 (10.7)	462 (12.6)	606 (16.6)	327 (8.9)	259 (7.1)

반면 매출액 규모 50억원 이상의 법인 수가 2011년 275개소에서 2014년 586개소로 113%증가하여 규모가 큰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규모가 작은 신설법인이 증가하고 있

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출액규모 20억원 이상인 중견규모 법인에서 꾸준히 매출액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출액 규모별 농업회사법인의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출자금, 비농업부문 출자비율,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1억원 미만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금이 2억원 규모로 적고, 매출액은 3천 7백만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를 내고 있으며,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역시 24.2%로 평균보다 6.7%p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규모가 2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각각 35.0%, 38.3%, 39.8%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구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 다른 매출액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2. 매출액 규모별 주요지표(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

사업유형	법인 수	출자금	비농업 부문 출자비율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총계	10,522	550	30.9	2,549	1,691	858	3,205	51	35
1억원미만	2,348	218	24.2	611	437	174	37	-36	-29
1~5억원	2,364	315	28.4	881	575	306	258	-28	-16
5~10억원	1,163	564	30.5	1,409	842	567	721	-13	-9
10~20억원	1,307	611	32.5	1,745	1,056	689	1,452	25	20
20~50억원	1,644	574	35.0	2,590	1,813	777	3,204	72	47
50~100억원	934	792	38.3	4,422	3,037	1,386	7,038	201	128
100억원이상	762	1,829	39.8	14,424	9,484	4,939	24,218	477	340

매출액 규모 구간별로 상근고용종사자 수, 무형자산, 농지소유면적 평균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근고용종사자는 매출액 규모가 1억원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1명 수준이지만, 매출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근고용종사자 수도 증가하여 100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상근고용종사자 수가 약 32명으로 증가한다. 또한 무형자산도 사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평균차이가 발생하기 보다는 사업유형에 따라 평균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2011~2014년)

단위 : 명, 백만원, ha

사업유형	법인 수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농지소유면적
총계	10,522	6.5	17.4	2.19	0.65
1억원미만	2,348	1.0	5.2	1.53	0.31
1~5억원	2,364	2.5	7.8	2.21	0.77
5~10억원	1,163	3.8	14.3	2.60	1.25
10~20억원	1,307	5.4	20.1	1.54	0.42
20~50억원	1,644	7.4	34.7	3.49	0.44
50~100억원	934	12.9	20.8	1.19	0.29
100억원이상	762	32.4	43.4	3.08	1.71

17개 시도별 농업회사법인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에 전체의 약 20%가 위치해 있는데, 경기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소비자 접근성이 높으며, 경지면적도 전남, 경북, 충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지역의 농업회사법인 개소 수와

비율이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 충북 지역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4-14.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수(2011~2014년)

단위 : 개소, %

지역명	총계	조사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522 (100.0)	1,659 (100.0)	2,283 (100.0)	2,923 (100.0)	3,657 (100.0)
서울	281 (2.7)	50 (3.0)	71 (3.1)	78 (2.7)	82 (2.2)
부산	118 (1.1)	16 (1.0)	24 (1.1)	31 (1.1)	47 (1.3)
대구	140 (1.3)	15 (0.9)	31 (1.4)	44 (1.5)	50 (1.4)
인천	160 (1.5)	26 (1.6)	32 (1.4)	45 (1.5)	57 (1.6)
광주	219 (2.1)	31 (1.9)	50 (2.2)	64 (2.2)	74 (2.0)
대전	186 (1.8)	30 (1.8)	40 (1.8)	49 (1.7)	67 (1.8)
울산	36 (0.3)	6 (0.4)	8 (0.4)	7 (0.2)	15 (0.4)
세종	40 (0.4)	0 (0.0)	5 (0.2)	15 (0.5)	20 (0.5)
경기	2,117 (20.1)	336 (20.3)	443 (19.4)	575 (19.7)	763 (20.9)
강원	528 (5.0)	88 (5.3)	118 (5.2)	150 (5.1)	172 (4.7)
충북	706 (6.7)	125 (7.5)	155 (6.8)	198 (6.8)	228 (6.2)
충남	1,038 (9.9)	166 (10.0)	221 (9.7)	283 (9.7)	368 (10.1)
전북	1,110 (10.5)	175 (10.5)	241 (10.6)	311 (10.6)	383 (10.5)
전남	1,421 (13.5)	208 (12.5)	318 (13.9)	404 (13.8)	491 (13.4)
경북	1,039 (9.9)	169 (10.2)	228 (10.0)	290 (9.9)	352 (9.6)
경남	771 (7.3)	128 (7.7)	172 (7.5)	207 (7.1)	264 (7.2)
제주	612 (5.8)	90 (5.4)	126 (5.5)	172 (5.9)	224 (6.1)

17개 시도별 농업회사법인 주요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평균 출자금 이 16억원으로 전국 평균 출자금 5.5억원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보다 농업회사법인 개소 수가 적은 영향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업회사법인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5.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주요지표(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

지역명	법인 수	출자금	비농업 부문 출자비율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총계	10,522	550	30.9	2,549	1,691	858	3,205	51	35
서울	281	504	58.7	1,858	1,164	693	2,668	37	13
부산	118	210	50.4	1,341	805	534	2,706	119	104
대구	140	182	41.0	1,538	1,062	477	2,768	80	64
인천	160	845	29.7	2,121	756	1,365	1,963	33	23
광주	219	360	39.4	1,392	1,074	317	2,323	30	21
대전	186	190	49.4	1,077	692	385	2,995	53	45
울산	36	132	26.7	1,957	1,364	593	4,343	409	334
세종	40	1,599	35.7	4,593	2,588	2,005	2,716	69	100
경기	2,117	724	38.7	3,521	2,125	1,396	4,492	101	85
강원	528	366	30.1	1,448	943	505	1,516	6	6
충북	706	613	30.0	3,184	2,251	933	4,096	-21	-36
충남	1,038	931	27.7	3,484	2,135	1,350	3,701	103	55
전북	1,110	400	26.5	1,991	1,434	558	3,128	33	33
전남	1,421	504	26.9	2,144	1,543	601	2,748	10	-4
경북	1,039	340	24.2	2,493	1,992	501	3,106	60	24
경남	771	512	19.8	2,168	1,476	692	2,597	60	45
제주	612	396	26.9	1,992	1,287	705	1,596	-7	4

한편,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에서 약 40~50%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는 직접 경작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분포가 적고,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높은 농축산물 유통업과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 등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기지역을 제외한 경상, 전라, 충청, 제주, 강원지역에서 전국 평균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인 30.9%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농업인의 수가 많고, 주된 사업유형이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낮은 작물재배와 축산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종사자, 경지면적, 농지소유규모의 평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형자산은 지역별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고용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18.2명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표본 수가 적어서 특정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 수가 지역평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을 제외하면 경기, 충북, 충남, 서울 지역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 수가 타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 인천, 부산, 전남 등의 지역에서는 타지역보다 상근고용종사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경지면적은 인천지역에서 29ha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논벼 경작면적이 큰 강화군에서 농업인 중심으로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특기할만한 점은 제주지역의 농업회사법인 경지면적과 소유면적이 평균이상이라는 점인데, 전국에서 제일 적은 경지면적과 1인당 농지소유면적을 지니고 있는 제주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의한 경지면적과 소유면적이 타지역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최근 제주지역 지가상승을 감안했을 때 농지투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6.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

지역명	법인 수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농지소유면적
총계	10,522	6.5	17.4	2.19	0.65
서울	281	7.2	21.1	1.03	0.14
부산	118	4.4	6.6	0.70	0.16
대구	140	3.7	5.7	1.81	0.10
인천	160	4.0	20.1	29.05	6.81
광주	219	4.6	18.8	0.19	0.04
대전	186	4.5	7.0	0.70	0.04
울산	36	18.2	0.0	0.18	0.11
세종	40	6.1	13.4	0.70	0.59
경기	2,117	9.4	21.2	1.60	0.56
강원	528	5.0	11.7	2.05	0.65
충북	706	7.8	25.0	1.57	0.61
충남	1,038	7.2	27.4	2.72	1.09
전북	1,110	5.7	13.8	1.56	0.41
전남	1,421	4.6	9.5	2.20	0.52
경북	1,039	6.9	16.2	1.35	0.48
경남	771	4.8	14.8	1.24	0.21
제주	612	5.1	19.5	3.18	1.13

운영기간별 농업회사법인의 수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1년미만 신설 법인이 약 518개소로 약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년이상 장기간 운영된 법인도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기간 3년미만 농업회사법인 비율은 2011년 54.5%에서 2014년 46.8%로 7.7%p 감소하였고, 9년이상 운영된 법인의 수는 2011년 189개소에서 2014년 약 2배수준인 4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운영기간별 농업회사법인 수(2011~2014년)

단위 : 개소, %

조사년도	계	1년미만	1~3년	3~6년	6~9년	9년이상
계	10,522 (100)	1,589 (15.1)	3,729 (35.4)	2,927 (27.8)	1,097 (10.4)	1,180 (11.2)
2011	1,659 (100)	274 (16.5)	630 (38.0)	406 (24.5)	160 (9.6)	189 (11.4)
2012	2,283 (100)	394 (17.3)	846 (37.1)	570 (25.0)	220 (9.6)	253 (11.1)
2013	2,923 (100)	403 (13.8)	1,060 (36.3)	819 (28.0)	320 (10.9)	321 (11.0)
2014	3,657 (100)	518 (14.2)	1,193 (32.6)	1,132 (31.0)	397 (10.9)	417 (11.4)

운영기간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요지표를 분석해보면, 운영기간에 증가함에 따라 출자금,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은 운영기간에 따른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장기간 운영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준다.

표 4-18. 운영기간별 농업회사법인 주요지표(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

지역명	법인 수	출자금	비농업 부문 출자비율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총계	10,522	550	30.9	2,549	1,691	858	3,205	51	35
1년미만	1,589	243	32.8	922	647	275	1,009	10	2
1~3년	3,729	315	30.6	1,330	973	358	2,180	28	19
3~6년	2,927	669	30.5	2,647	1,790	858	3,456	32	18
6~9년	1,097	990	30.1	4,275	2,648	1,627	4,977	90	63
9년이상	1,080	1,002	31.2	6,739	4,229	2,509	7,134	189	144

운영기간에 따른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농지소유규모 평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지면적 평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은 운영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영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형자산이 축적되고, 매출액 등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19. 운영기간별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2011~2014년)

단위 : 백만원, ha

지역명	법인 수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농지소유규모
총계	10,522	6.5	17.4	2.19	0.65
1년미만	1,589	3.1	3.4	1.80	0.15
1~3년	3,729	4.0	6.9	2.02	0.40
3~6년	2,927	6.3	18.7	2.07	0.73
6~9년	1,097	10.3	40.6	2.71	1.70
9년이상	1,080	16.1	44.5	3.06	0.94

제2절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14년 농업법인조사 원자료의 13,390개 농업회사법인 중 재무제표를 미작성한 1,013개소를 제외하고, 주요변수에 결측값이 포함된 1,855개소를 제외한 10,522개소이다. 연구변수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의 평균은 0.309이며, 표준편차는 0.379, 중앙값은 0으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역으로 생각하면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일어나는 농업회사법인이라면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적 성과인 수익성을 알아볼 수 있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의 평균값은 모두 음수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농업회사법인에서 영업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앙값이 양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 중 절반이상은 영업흑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과도하게 영업적자를 발생시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인해 평균이 음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균 상근고용종사자의 수는 6.5명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은 2명으로 나타나 절반 수준의 농업회사법인이 2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형자산은 평균 1천 7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의 중앙값은 0원으로 나타나 농업회사법인의 50% 이상이 무형자산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운영기간은 평균 3.8년, 표준편차는 4.5년, 중앙값은 2년으로 나타났으며, 경지면적은 평균 2.189ha, 출자금 총계는 평균 550억원, 자산총계는 평균 25억 4천 8백만원, 부채총계는 평균 16억 9천 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0. 분석대상 주요변수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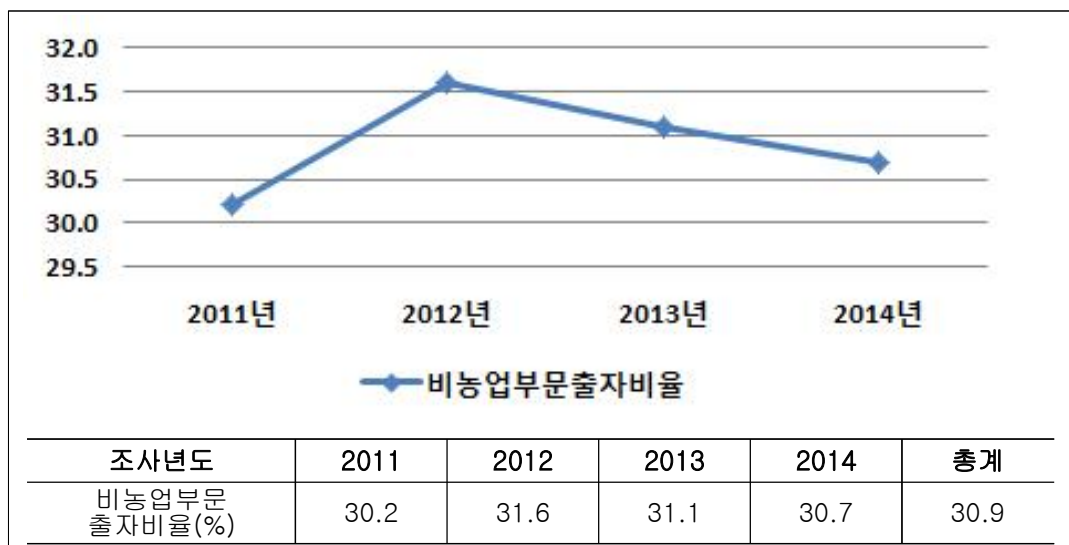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ha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연구 변수	비농업부문출자비율	10,522	0.309	0.379	0.000
	매출액영업이익률	10,522	-0.960	11.613	0.014
종속 변수	총자산순이익률	10,522	-0.061	0.981	0.018
	자기자본순이익률	10,522	-0.054	14.663	0.102
	상근고용종사자	10,522	6.537	15.753	2.000
	무형자산	10,522	17.386	142.571	0.000
	운영기간	10,522	3.849	4.538	2.000
통제 변수	경지면적	10,522	2.189	23.424	0.000
	출자금총계	10,522	550.045	2,817.042	100.000
	자산총계	10,522	2,548.600	7,583.274	693.000
	부채총계	10,522	1,690.652	4,597.045	450.000

다음으로는 연도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변수인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다.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은 2011년 평균 30.2%에서 2012년 31.6%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31.1%, 2014년 30.7%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한도가 75%에서 90%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표에 결측값이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2010년 평균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은 29.6%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를 유추할 수 있다.¹²⁾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은 비농업인 출자비율과 기타법인 출자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농업인 출자비율은 평균 28.7%, 기타법인 출자비율은 평균 2.2%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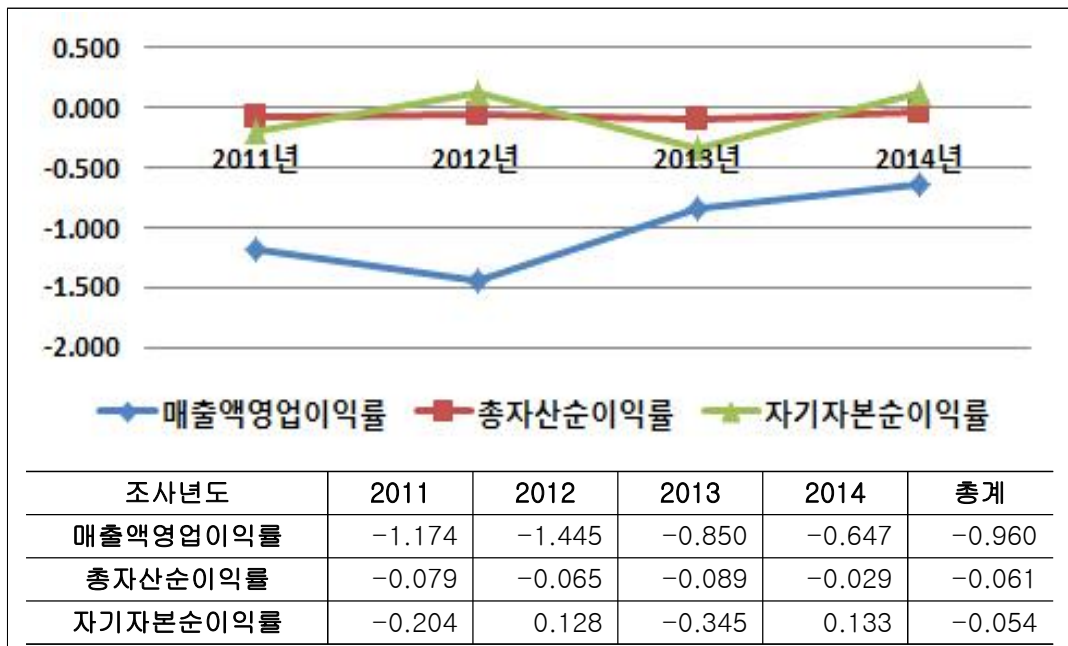
그림 4-1. 연구변수(비농업부문 출자비율) 기술통계



12)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하는 것은 시행령 위반이나, 본 연구는 현실에서 법률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90%를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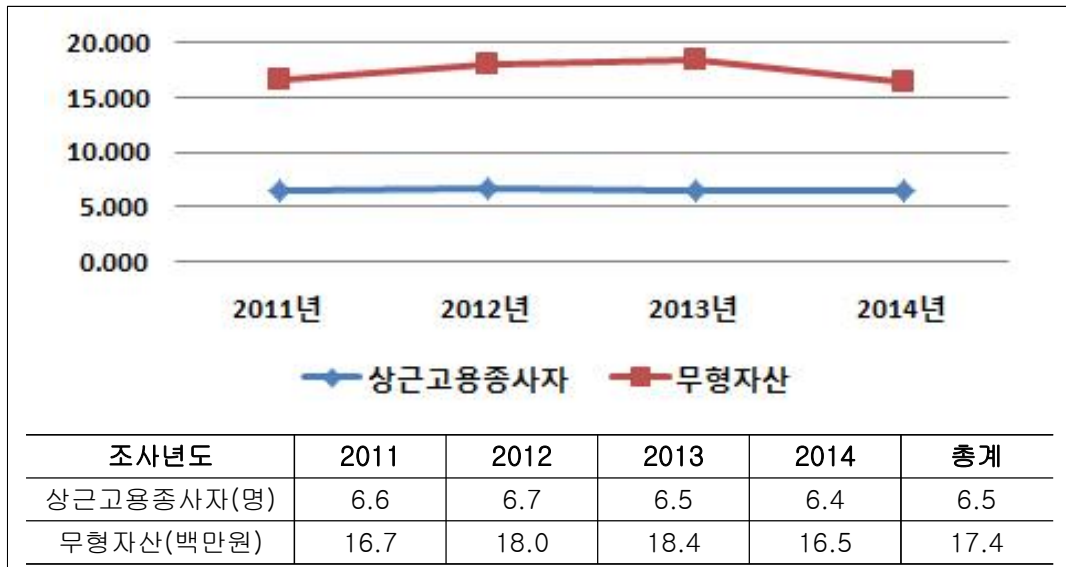
다음은 재무성과와 관련된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1.174에서 2014년 -0.647로 개선되었으나, 분석대상년도 모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것으로서 비록 분석대상 4개년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2011년에 -0.204였으나, 2012년에는 0.128, 2013년 -0.345, 2014년 0.133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 종속변수(재무성과 관련)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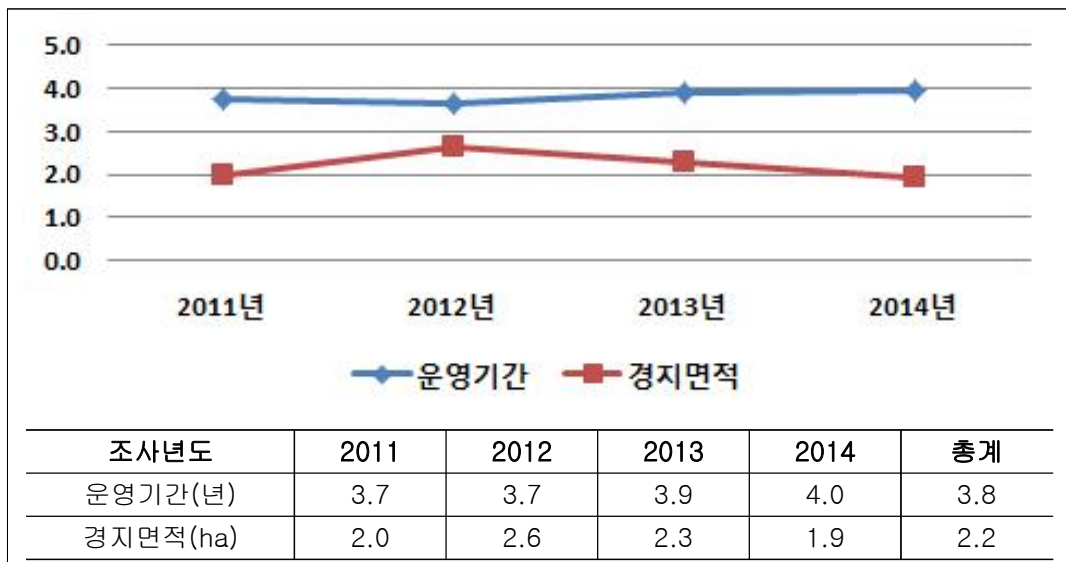
비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종속변수인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근고용종사자 수는 2012년 6.7명으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하락하여 연평균 6.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무형자산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고 2014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천 7백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종속변수(비재무성과 관련)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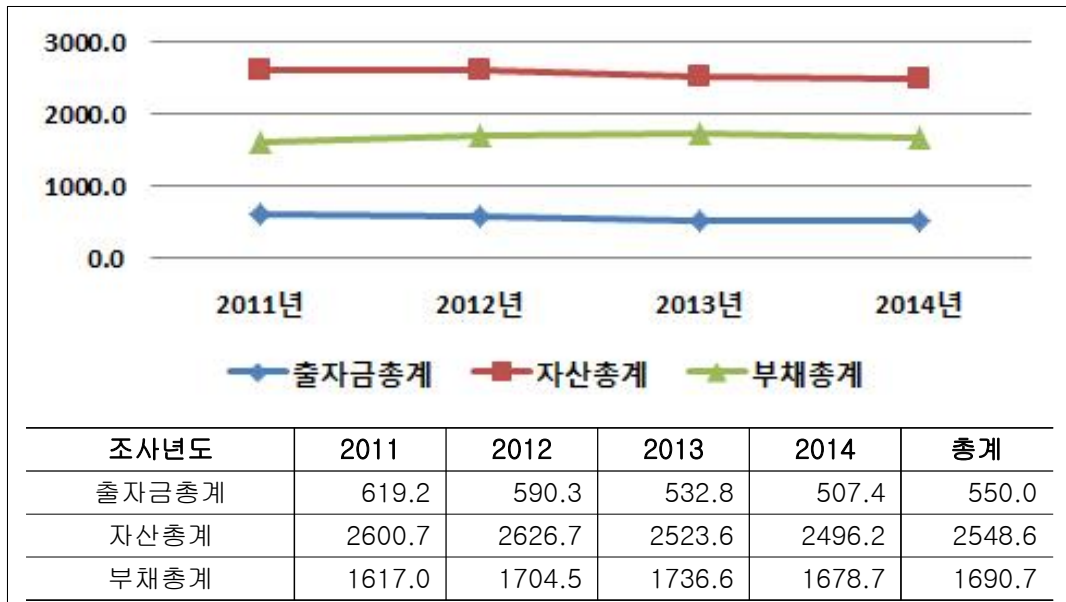
농업회사법인의 운영기간은 평균 3.8년이며, 조사가 진행될수록 평균 운영기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한 경지면적은 2011년 2.0ha에서 2012년 2.6ha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평균 1.9ha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통제변수(농업회사법인 일반특성) 기술통계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출자금 총계는 연평균 5억 5천만원이며, 평균 자산총계는 약 25억원, 평균 부채총계는 약 1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그림 4-5. 통제변수(농업회사법인 재무적특성) 기술통계



제3절 상관분석

주요변수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변수인 비농업부문 출자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상근고용종사자, 무형자산, 경지면적, 출자금 총계, 자산총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는 총자산 순이익률이 관련성이 있으며, 총자산순이익률은 상근고용종사자수와 운영기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고용종사자 변수는 무형자산, 운영기간, 출자금 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표

구분	비농업 부문 출자 비율	매출액 영업 이익률	총자산 순이익 률	자기 자본 순이익 률	상근 고용 종사자	무형 자산	운영 기간	경지 면적	출자금 총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비농업 부문 출자비율	1										
매출액 영업 이익률	.005	1									
총자산 순이익률	.014	.092**	1								
자기자본 순이익률	.002	-.001	-.009	1							
상근고용 종사자	.095**	.016	.030**	-.005	1						
무형자산	.037**	.004	.008	-.004	.152**	1					
운영기간	-.011	.007	.038**	-.004	.241**	.077**	1				
경지면적	-.033**	.004	.002	.003	.002	.005	.021*	1			
출자금 총계	.024*	-.014	.008	-.008	.162**	.118**	.090**	.142**	1		
자산총계	.069**	-.003	.026**	-.065**	.620**	.174**	.254**	.105**	.557**	1	
부채총계	.082**	-.010	.017	-.109**	.568**	.092**	.237**	.027**	.241**	.805**	1

**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 *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

제4절 비농업부문 출자의 농업회사법인 경영성과 영향력 분석

1.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기업의 재무적 비용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매출액 32억원 중 매출원가가 약 28억원으로 매출액의 87%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총이익은 약 4억원이지만 판매관리비가 평균 4억원 정도 지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비가 높아 매출원가가 높고,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판매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비농업부문의 출자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만으로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4-22. 매출액영업이익률 회귀분석표

변수명	매출액영업이익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수준
비농업부문출자비율	0.0505	0.3115	0.8712
운영기간	0.0189	0.0264	0.4746
경지면적	0.0000	0.0000	0.3260
출자금총계	-0.0001 **	0.0001	0.0303
자산총계	0.0001 **	0.0000	0.0427
부채총계	-0.0001 **	0.0000	0.0253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 (상수)	-0.1463	0.2459	0.5520
	-1.7976	0.6076	0.0031
지역 통제 여부	Y		
사업 유형 통제 여부	Y		
조사년도 통제 여부	Y		
조정된 R-square	0.003		

2.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은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총합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법인은 총자산순이익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부채의 차이가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비농업부문출자비율이 총자산순이익률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의미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함께 비교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표 [4-24]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표를 보면,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자산순이익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차이는 부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구간별 부채총액을 분석해보면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부채총액은 약 15억원이며, 25~50%는 19억원 75%이상인 경우는 25억원에 달해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부채총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던 농업회사법인이 정부, 지자체, 비농업인 등 비농업부문의 자금출자를 통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금차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인적·물적 투자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당기순이익의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매출총이익이 약 4억원으로 나타났으나, 25~50% 구간은 약 5억원. 75%이상 구간은 약 6억원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즉,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는 농업회사법인의 자금차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부채를 증가시키지만, 이를 활용한 투자를 통하여 더 큰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결국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총자산순이익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3. 총자산순이익률 회귀분석표

변수명	총자산순이익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수준
비농업부문출자비율	0.0486 *	0.0263	0.0645
운영기간	0.0077 ***	0.0022	0.0006
경지면적	0.0000	0.0000	0.6651
출자금총계	0.0000	0.0000	0.3401
자산총계	0.0000 *	0.0000	0.0531
부채총계	0.0000	0.0000	0.1329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 (상수)	0.0132	0.0208	0.5244
	-0.0438	0.0513	0.3934
지역 통제 여부	Y		
사업 유형 통제 여부	Y		
조사년도 통제 여부	Y		
조정된 R-square	0.003		

3.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제외한 순수 자본총계 대비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당기순이익을 얼마만큼 창출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고려하게 되는 지표이다. 이와 같이 법인의 중요한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은 자기자본순이익률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가 자기자본순이익률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증가함에 따라 분모인 자기자본의 증가는 발생하지만,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가져오는 농업회사법인 운영의 효율성이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운영기간과 자산총계는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총계는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자기자본순이익률 회귀분석표

변수명	자기자본순이익률		
	계수	표준 오차	유의수준
비농업부문출자비율	0.3691	0.3915	0.3458
운영기간	0.0624 *	0.0332	0.0599
경지면적	0.0000	0.0000	0.8552
출자금총계	0.0000	0.0001	0.5236
자산총계	0.0001 ***	0.0000	0.0016
부채총계	-0.0005 ***	0.0001	0.0000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 (상수)	0.1348	0.3091	0.6628
	0.3994	0.7636	0.6010
지역 통제 여부	Y		
사업 유형 통제 여부	Y		
조사년도 통제 여부	Y		
조정된 R-square	0.12		

4. 상근고용종사자

상근고용종사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근근로자로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을 의미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축산물 가공업 분야 등의 농업회사법인은 노동자의 전문성 강화가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본이 된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심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만연한 상황에서 상근고용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기술개발, 판로개척, 원가절감 등과 더불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증가할수록 상근고용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상근고용종사자 회귀분석표

변수명	상근고용종사자		
	계수	표준 오차	유의수준
비농업부문출자비율	1.3171 ***	0.3097	0.0000
운영기간	0.2600 ***	0.0262	0.0000
경지면적	0.0000 ***	0.0000	0.0000
출자금총계	-0.0013 ***	0.0001	0.0000
자산총계	0.0015 ***	0.0000	0.0000
부채총계	0.0002 ***	0.0000	0.0010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 (상수)	-0.2964	0.2444	0.2254
	0.4550	0.6039	0.4513
지역 통제 여부	Y		
사업 유형 통제 여부	Y		
조사년도 통제 여부	Y		
조정된 R-square	0.464		

이와 같은 결과는 비농업부문 출자자의 장기적 투자관점이 상근고용종사자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던 앞서 제시한 논거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유인이 높으며, 일반기업은 안정적 원료공급 또는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고용종사자 수를 늘리면서 인적자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비농업인의 농업인보다 유리한 자금 유동성이 농업인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개연성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상근직원 고용에 대한 인지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비농업부문이 농업부문에 비해 고용에 대한 인식이 더 탄력적이고 수용성이 높아 상근고용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비농업부문의 출자를 통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향상된 농업회사법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차입을 받고 이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스스로 인적/물적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5. 무형자산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무형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무형자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농업부문 출자자의 비율이 높을 수록 당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저작권, 임차권, 특허권 등 장기적으로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요소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6. 무형자산 회귀분석표

변수명	무형자산		
	계수	표준 오차	유의수준
비농업부문출자비율	11.1559 ***	3.7492	0.0029
운영기간	1.1864 ***	0.3175	0.0002
경지면적	0.0000 **	0.0000	0.0119
출자금총계	-0.0004	0.0006	0.5305
자산총계	0.0055 ***	0.0004	0.0000
부채총계	-0.0045 ***	0.0006	0.0000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 (상수)	-4.9639	2.9595	0.0935
	6.7554	7.3118	0.3556
지역 통제 여부	Y		
사업 유형 통제 여부	Y		
조사년도 통제 여부	Y		
조정된 R-square	0.042		

또한 무형자산은 사업유형에 따라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축산물가공업유형이 평균 2천 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영농 유형이 평균 8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농축산물을 단순하게 생산하는 곳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상품 브랜드화, 실용신안 등 무형자산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근간인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서도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무형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25%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평균 무형자산이 각각 1천 8백만원, 1천 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75%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평균 무형자산이 각각 5천 9백만원, 3천 3백만원으로 약 2~3배 크게 나타나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분야에서도 비농업부문의 출자가 무형자산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으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는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가 양수로 나타나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자산순이익률의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부, 지자체, 일반기업, 일반인 등의 출자가 증가하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담보력과 신용도가 상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이익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는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 일반기업과 일반인은 농업인에 비해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경향이 높고, 특히, 정부·지자체·기업은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장기적 투자관점에서 보면,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감안할 때 농

업회사법인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적인 상근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가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가 상근고용종사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는 농업회사법인의 무형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인에 비해 최신 기술에 민감한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비농업부문 출자자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가 무형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영세소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업회사법인 육성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정책과 융자지원을 통해 그 개소 수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비농업인 등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가 확대되고,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비농업부문이 주축이 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확대는 기존 농업인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즉, 비농업부문의 자본이 농업부문에 진입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찬성입장과 영세소농을 포함한 기존 농업인과의 경합, 비농업자본의 무분별한 농지투기 등을 우려하는 반대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실증적인 분석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비농업부문 자본의 농업분야 진입에 대한 논의가 큰 진전 없이 찬반 입장만 고수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농업부문의 농업투자에 대한 농정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실증분석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회사법인 총 10,522개소를 대상으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 성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부

문 출자비율 증가는 총자산순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가 양수로 나타나 긍정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업분야의 생산비가 높아 매출원가 비율이 높고, 농업회사법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판매관리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농업부문의 출자비율 증가만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담보력과 신용도를 높여 원활한 자금차입을 통한 회사운영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총자산순이익률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 증가라는 비재무적 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 비농업부문이 지니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농업회사법인 육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상근고용종사자와 무형자산을 증가시키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초현황 분석결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면적은 전국평균 0.65ha로 나타나는데, 제주지역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1.13ha로 전국에서 제일 적은 경지면적을 보유한 제주지역에서 법인 평균 농지소유면적이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현황 분석결과 비농업부문 출자비율과 농지소유면적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지가상승률이 높은 제주지역에는 농업부문 출자자와 비농업부문 출자자 구분 없이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핵심쟁점인 비농업부문 자본의 농업분야 진입에

대한 찬반의견과 다양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실증분석을 시작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전의 연구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비농업부문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가 각각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합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참여와 경영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분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로 인하여 비농업부문의 농업분야 진입에 관한 의견대립과 찬반입장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념적·주관적 주장이 중심이 되어 의견대립 속에서 극심한 갈등만 되풀이되는 구조를 지녔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사실관계 속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증가가 제한적으로나마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농업의 발전과 연계된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은 연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정부의 농업회사법인 육성과 관련된 농정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가 증가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조직운영 효율화, 감시활동 강화, 철저한 사업관리, 투자촉진, 판로확대 등을 통한 재무적 성과향상이 기대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무적 성과향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문의 높은 생산비와 기본적 조직운영에 따른 판매관리비가 여전히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아직까지 농업회사법인의 경영효율화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의 생산비와 판매관리비를 낮추기 위한 법인별 경영진단과 컨설팅 지원을 장기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농업부문 출자와 농지소유면적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사례를 분석하면 농업회사법인을 활용한 농지투기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은 농업인이 업무집행권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범위가 영농종사자에서부터 농산물 판매업 종사자, 영농법인 피고용자까지 매우 광범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 또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구분없이 농지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지소유 요건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투기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농지가 반드시 필요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유형 등에 한정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니지만 분석자료의 조사시점과 패널데이터 미구축, 농업법인조사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농업법인조사 자료에 관한 문제로 조사시점과 패널데이터 구축과 연관된 한계이다.

2018년 1월 2016년 기준 농업법인조사결과가 공포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2011년에서부터 2014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한 것인데, 약 2년동안 농업회사법인의 수가 4,781개소에서 39% 증가한 6,645개소로 크게 증가하는 등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상황이 빠르게 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시의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회사법인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이나 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유용성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별 패널데이터 형식으로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비농업부문 출자비율 증가에 따른 개별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 측정이 제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한 효과는 측정이 곤란한 점, 도구변수의 사용이 제한되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지니는 또 다른 한계는 농업법인조사자료만을 활용

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인들을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의 전문성은 농업법인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을 비롯한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병률·김수석·국승용·유찬희·김종인. (2017)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박석두(2006)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안호·신인식(2003) 『현대농업경제학』, 청목출판사
- 김정호·이성호·박문호(199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김태곤·조성열(2004),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박영기·강상현·심은숙·최은아(2015)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환경농업연구원
- 김태곤·최병옥·양찬영(2013),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임지은(2014),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전익수(2000),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문]

- 김경애·김재범. (2009) “외국인투자지분율 차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9.8. pp 361-383
- 김태곤(2009), “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 : 일본의 경우”, 시선집중 GSnJ 제 76호 1-15

- 노미현(2014), “DEA를 이용한 외부감사 대상 농업법인 기업의 경영효율성 분석”,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5호 469-489
- 노미현·김태정(2009),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외부감사대상 농업기업의 주요경영지표 분석”, 『상업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215-240
- 박경서·이은정(2006), “외국인투자자가 한국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제20권 제20호 73-113
- 박규동(2012),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병원(2016), “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
- 박헌준·신현환·최완수(2004), “한국기업의 대리인 비용과 기업가치 : 외국인지분의 역할”, 경영학연구(한국경영학회), 제33권 제2호, 655-682
- 서기석(1997), “양돈영농조합법인의 경영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169-182
- 이상호·김충실·권경섭(2011), “농업생산법인의 경영효율성 분석: 부트스트래핑기법 활용”, 『벤처창업연구』 제6권 제4호 137-152
- 이상호·송경환(2011), “대구경북지역 농업법인의 효율성 분석”,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8집 87-100
- 이성호(1997), “농업회사법인 성립의 경제적 의미 : 농기계 이용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20권 제1호 29-38
- 임인섭·이상래(2017),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농업법인의 부채비율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2) 600-608
- 정양현·이충섭·문정훈·최영찬(2007), “농업법인의 시장 및 기술환경 특성과 균형성과”, 농촌계획 제13호, 51-62
- Breukers, A. Hierbrink, O., and Ruijs, M.(2008) The Power of Dutch Greenhouse Vegetable Horticulture: An Analysis of the

- Private Sector and its Institutional Framework. Report 2008-049, Project Number 40637
- Chhibber, P., and Majumdar, S(1999)., “Foreign Ownership and Profitability: Property Rights, Control, and the Performance of Firms in Indian Industr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2, 209-238
- Khanna, T., and Palepu, K.(1999), “Emerging Market Business Groups, Foreign Investors, and Corporate Governance,” NBER Working paper NO. 6955
- Moran, S.(2014), “Agricultural Patenting : A Case Study of Monsanto.” Pepperdine policy review volume 7, Article 4:1-22
- Lyson T.A. 2005,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Anticorporate Farming Laws, and Rural Community Welfar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005 37: 1479-1491
- Welsh, R. Carpentier, C.L., and Hubbel, B.(2001), “On the Effectiveness of State Anti-Corporate Farming Laws in the United States.” Food Policy 26 543-548
- Wittmaack, J.(2006), “Should Corporate Farming be Limited in the United States?: An Economic Perspective.” Major Themes in Economics(University of Northern Iowa) 45-59
- Laperouse, P.(2012), Case studies on Private Investment in Farmland 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High Quest Partners.

[정부 간행물]

-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6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 통계청(2016) 『2015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